

[바둑]

백홍석, 박영훈 나와라

이세돌 꺾고 기성전 도전권 획득



백홍석 5단(사진)이 국내 랭킹 1위인 이세돌 9단을 꺾었다. 백홍석은 지난 19일 한국기원 특별 대국실에서 벌어진 제19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도전자결정전에서 이세돌을 272수 끝에 흑반점으로 따돌리

며 도전권을 손에 넣었다. 백홍석은 상대적적 2승3패로 이세돌에게 그동안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이날 풀을 가려 흑을 권 백홍석은 초반 이세돌의 날카로운 공격을 잘 막아내며 끝내기에서 침착한 마무리 솜씨를 발휘, 반집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백홍석은 박영훈 9단에게 도전하게 됐다. 현재까지 대회 3연패를 하고 있으며 랭킹 3위인 박영훈이 객관적인 전력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세돌을 물리치고 도전무대까지 올라온 백홍석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첫 판을 누가 따내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전3번기 1국은 4월에 벌어질 예정이다. 제한시간 각 1시간 6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준속기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세돌 9단〉 〈이창호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송태곤 8단〉 〈이영구 7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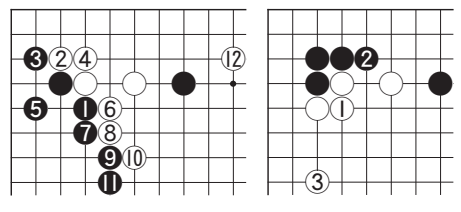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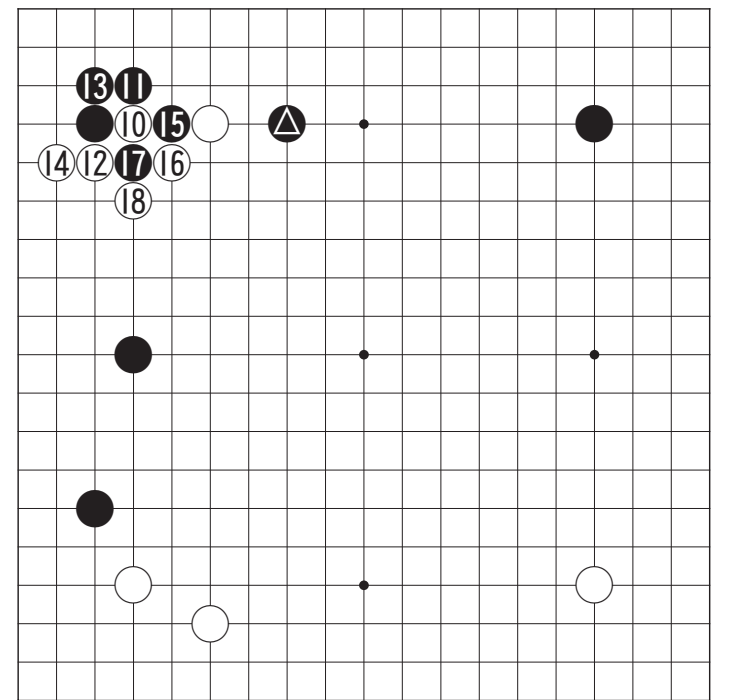
우승상금 40만弗... 응씨배를 탈환하라

이세돌·이창호 9단 등 6명 대표 확정 한·중·일 바둑 삼국지...4월 진검승부

바둑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이 확정됐다. 최고의 상금을 걸고 4년마다 열리는 제6회 응씨배(이하 응씨배) 세계 바둑대회에 한국은 6명이 참가한다.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0년 광저우(廣州)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중·일 대표선수들이 맞붙는 응씨배는 첫 아시안게임 메달의 향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만든 이 대회에서 제1회부터 4차례 잇따라 한국이 우승을 차지해 계속되고 있는 바둑 '공한증'(恐韓症)이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기원은 22일 "오는 4월 응씨배에 참가할 국가대표로 이세돌·박영훈·최철한·이창호 9단, 송태곤 8단, 이영구 7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철한, 이창호, 송태곤은 제5회 대회 8강 진출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드를 획득해 선발됐다. 또 이세돌, 박영훈 9단은 '국내에 배정된 시드의 절반 이상은 랭킹 상위자에게 준다'는 달라진 국가대표 선발 기준에 따라 출전권을 따냈다. 이세돌은 국내 랭킹 1위이며, 3위인 박영훈은 2위 이창호가 전 대회 8강 시드로 자동 출전함에 따라 대신 나가게 됐다. 나머지 1장의 티켓은 국내선발전을 통해 이영구에 게 돌아갔다. 이영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선발전 결승에서 강동윤 7단을

230수 끝에 흑불계로 물리쳤다. 응씨배는 대만 재벌 고 임창치(德昌期)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 40만달러(4억8천여만만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창설한 첫 세계 기전. 지난 1989년 첫 대회가 열렸고, 올해 6회째다. 임창치배·임씨배라고도 한다. 과거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세계 바둑계의 판도를 한·중·일 3국이 공존하는 구도로 바꿔게 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한국은 제1회 조훈현 9단, 제2회 서봉수 9단, 제3회 유창혁 9단, 제4회 이창호가 각각 우승했다. 무려 16년 동안 '바둑 월드컵 공헌증'을 극복하지 못했던 중국은 지난 2004년 제5회 대회에 와서야 창하오 9단이 첫 우승을 했다. 국내 대표 중에서는 단연 이세돌이 돋보인다. 이창호의 독무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1인자로 올라선 이세돌은 현재까지 7개의 타이틀을 따낸 최다관왕. 최근 박영훈을 누르고 삼성화재배를 품에 안은 것과 도요타텐소배,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까지 세계대회 타이틀만 세 개나 쥐고 있다. 이창호의 최근 기세도 거세다. 2007년 무관의 위기에 빠지면서 저조한 해를 보냈던 그는 올해 십단전에서 복진석 9단을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끝내기 실수를 하거나 초읽기에 물리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최근에는 '돌부처'라는 별명에 걸맞게 특유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이밖에 형세 판단과 중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박영훈 등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력 만점의 기세 다름
광주 기우회 2보(10~18)
대항전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종길 5단 (광우회)



이다. 그렇다면 기용성 5단 백 12로 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흑은 13으로 이를 수박에 얹는데 이렇게 되면 흑의 주력이었던 좌변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은 '참고도1'처럼 두는 것이다. 상대가 변칙으로 나오자 기용성 5단 백 14로 느는 강수를 들고 나온다. 이 수도 '참고도2'처럼 1로 잇고 3으로 벌리면 무난하며 백이 편하다. 그러나 상대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인자상점이다. 백 18까지는 서로 박력만점의 기세 다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아마 강자' 흥맛은샘, 장수 꺾었다

日 프로아마 명인전

한국의 아마 강자인 흥맛은샘(25) 아마 7단이 일본 명인타이틀 보유자인 장취 9단을 무너뜨렸다. 흥맛은샘은 지난 16일 아사히신문 주최로 열린 제2회 일본 프로아마 명인전에서 장취를 252수만에 흑1집반승으로 꺾었다. 흥맛은샘은 지난해 7월 일본 아마 명인인 윤춘호 아마 7단과 도전3번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 명

인에 등극했다. 흥맛은샘은 하성봉 아마 7단, 윤춘호 등과 함께 2000년대 초 한국 아마 바둑의 최정수급 기사로 활동했으나 국내에서 입단해 실패, 2004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프로-아마 명인전은 지난해 1월 첫 대회를 시작했는데 아마 명인이 먼저 두고 덤 6집 반이 주어진다. 흥맛은샘은 현재 일본 도쿄에서 바둑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농심배 바둑 중국에 무릎 한국이 제9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 우승 문턱에서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영훈 9단(왼쪽)이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맞붙은 창하오 9단에게 272수 끝에 불계패 당했다. 농심배는 한·중·일 국가대표 5명이 연습전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며 우승상금은 1억 5천만원이다. <사이버 오로 제공>

"우리 승단했어요"

이영구 입단 7년만에 7단 홍장식·홍성지도 6단으로

이제는 이영구 7단, 홍장식 6단, 홍성지 6단, 김민희 3단, 한해원 3단이라고 불려야 한다. 한국기원은 22일 "이들이 최근 벌어진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예선전 대국 결과 각각 승단 점수를 획득하면서 승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후지쯔배, 응씨배 국내 선발전에서 출전권을 따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영구는 2001년 5월 입단하여 7년만에 7단으로 승단했다. 현재 국내 랭킹 8위인 이영구는 2008 중국 갑조리그에서 쓰촨팀 소속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홍장식 6단(97년 12월 입단)은 10년만에 6단이 됐으며, 지난해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본선진출, 기성전 본선 진출한 홍성지 6단은 2001년 12월에 입단한 뒤 평균 1년에 1단씩 승단했다. 홍성지 6단은 현재 랭킹 14위에 올라 있다. 현재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시간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여류기사 김민희도 늦깎이 승단을 했다. 김민희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입단하여 99년 2단으로 승단한 후 8여년 만에 늦깎이 승단을 하게 됐다. 방승 해설가로 더 유명한 미녀 기사 한해원도 2001년 2단으로 승단한 이후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바둑, 동아시아 공동 문화로 발전시켜야"

명지대 남치형 교수 주장

바둑을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로 인식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남치형 교수는 지난 12일 일본 오사카 상업대학에서 '바둑과 인간의 행복-과거의 유산을 미래'란 주제로 열린 한·일 공동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바둑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한·중·일이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바둑을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로 인식해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점수안내
010-9901-1234

미채점점
010-9901-5678

SONY 모든것

남성강한힘
자신있고, 무기력 걱정 끝!
010-9901-1234

홈인 부동산 리서치
010-9901-1234

무형산 경매 전문회사
010-9901-1234